



2019. 9. 17.(화) ~ 9. 24.(화)
[독일, 오스트리아]

-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선진대중교통 우수사례조사 -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아 산 시
[대 중 교 통 과]

순 서

I. 연수 목적 및 개요	2
II. 연수 일정	4
III. 주요 방문기관 현황	5
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 참관	5
② Caritas 양로원 방문	6
③ 뮌헨교통협회(MVV)	8
IV. 시사점 및 제안사항	11
① 독 일	11
② 오스트리아	12
V. 참고 (연수국가 및 도시별 일반현황)	13
① 독 일	13
② 오스트리아	14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 충청남도 시·군의 선진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위해 방문 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우리 도·시군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임.

I 연수 목적 및 개요

□ 연수 목적

- 선진국의 대중교통정책 및 운영체계 벤치마킹
- 운송업체 경영기법 및 재정지원 현황 자료 수집
-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도입사례 수집

□ 연수 개요

- 연수기간 : 2019. 9. 17(화) ~ 9. 24(화) / 6박 8일
- 연수국가 : 독일, 오스트리아
- 연수인원 : 14명(도 1, 시군 13)
- 주요 연수(방문)기관

방문기관	방 문 목 적
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참관	▶ 친환경 차량 전시장 참관
② Caritas 양로원 방문	▶ 고령화 시대 선진 노인복지 정책 조사
③ 뮌헨교통협회(MVV) 방문	▶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선진대중교통 정책 사례 조사

□ 연수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1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 (행정5급)	이민희 (LEE MINHEE)	
2	천안시 대중교통과	행정7급	신진철 (SHIN JINCHUL)	
3	공주시 교통과	교통과장 (행정5급)	유훈중 (YOO HEUNJONG)	
4	보령시 교통과	행정7급	손호연 (SON HOYEON)	
5	아산시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행정5급)	국승섭 (KUK SEUNGSEOP)	
6	서산시 교통과	교통과장 (행정5급)	성기영 (SUNG KIYOUNG)	
7	논산시 도로교통과	교통지원팀장 (행정6급)	김영중 (KIM YOUNGJOUNG)	
8	당진시 교통과	교통관리팀장 (공업6급)	이상영 (LEE SANGYEONG)	
9	금산군 건설교통과	청원경찰	김학선 (GIM HAKSEON)	
10	부여군 경제교통과	사무운영7급	하일현 (HA ILHYOUN)	
11	서천군 지역경제과	행정6급	허철현 (HER CHEOLHYUN)	
12	청양군 지역경제과	행정8급	이장원 (LEE JANGWON)	
13	홍성군 건설교통과	행정8급	장혜원 (JANG HYEWON)	
14	예산군 건설교통과	청원경찰	우 식 (WOO SIK)	

II 연수 일정

일 정	지 역	교통편	시간	일 정	비고
제 1 일 9.17.(화)	인천 프랑크푸르트	KE 905	10:00 12:50 17: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집결(제2터미널) • 인천 공항 출발 • 프랑크푸르트 도착 	
제 2 일 9.18.(수)	프랑크푸르트 뮌헨	전용차량	09:00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 참관 • 이동(뮌헨) 	
제 3 일 9.19.(목)	뮌헨	전용차량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로원 (Caritas-Altenheim St.Franziskus München) 방문 -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정책 설명 	
제 4 일 9.20.(금)	뮌헨 쾰른	전용차량	09:00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뮌헨교통협회(MVV) 방문 - 대중교통정책 및 친환경교통수단 설명 • 이동(쾰른) 	
제 5 일 9.21.(토)	쾰른 할슈타트 징크트갈젠 쾰른	전용차량	09:00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할슈타트) • 세계문화유산 탐방 	
제 6 일 9.22.(일)	쾰른 비엔나	전용차량	09:00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비엔나) • 세계문화유산 탐방 	
제 7 일 9.23.(월)	비엔나	KE938	18: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엔나 국제공항 출발 	
제 8 일 9.24.(화)	인천	KE938	1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도착 및 해산 	

Ⅲ 방문기관 현황 및 내용

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 참관

○ 방문일시 : 2019.9.18.(수) 09:00

○ 주 소 : Trade fair grounds, Ludwig-Erhard-Anlage 1, D-60327
Frankfurt/Main

□ 현황

○ 1897년부터 개최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파리모터쇼, 제네바 모터쇼, 디트로이트모터쇼, 도쿄모터쇼와 함께 세계 5대 모터쇼로 손꼽힌다.

○ 올해는 ‘드라이빙 투모로우(Driving Tomorrow)’라는 주제로 개최됨에 따라 다양한 전기 콘셉트 카와 양산차를 대거 선보였다.

□ 관련사진



② Caritas-Altenheim St.Franziskus München

○ 방문일시 : 2019.9.19.(목) 09:00

○ 주 소 : Hans-Mielich-Strasse 4, 81543 München

□ 현황

○ Caritas는 카톨릭 계열의 구호단체로 유치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 시설 등 다양한 복지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뮌헨 근처에 28개의 양로원을 운영하고 있다.

○ Caritas-Altenheim St.Franziskus München은 2005년 운영을 시작 하여 지금은 평균 연령 86세의 노인 77명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 주요질문

질문	정부에서 양로원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지?
답변	양로원은 주 사회복지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이용요금의 약 40%인 관리(의료) 비용은 의료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숙식·미용 등 양로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연금, 저축 등으로 지불한다. 하지만 이마저 지불이 어려운 노인들은 정부 지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질문	양로원에 입소하길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이용가능하다.

질문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은?
답변	양로원에는 3교대로 약 2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이들 중 50%이상은 전문 지식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중요도는 인정하지만 직업선택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질문	최근 노인복지와 관련되어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	최근에는 노인들을 요양원에 입소시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 관련사진



③ Münchner Verkehrs -und Tarifverbund(MVV) 방문

○ 방문일시 : 2019.9.20.(금) 09:00

○ 주 소 : Thierschstrass 2, 80538 München

□ 현황

- 뮌헨은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유럽 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현재 독일에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증하는 도시 중 하나이다.
- 뮌헨교통협회(MVV)는 1972년 이후 뮌헨에 5개의 교통수단(S-Bahn, U-Bahn, Tram, Bus, Regionalbus)을 구축하였으며, 현재는 1개의 티켓으로 5개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확립하였다.
- 최근 뮌헨의 인구 증가로 인해 기존 주민들이 뮌헨 외곽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시 외곽까지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이에 따라 2028년까지 S-Bahn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 이러한 뮌헨의 대중교통에 관한 모든 정책의 책임자는 뮌헨 시이고 협회는 시의 지시를 받아 운영 중이다. 뮌헨교통협회의 주요 역할은 교통관련 정책을 관리하는 것이고 40여개의 교통회사들이 이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 주요질문

질문	뮌헨에서 최근 추진하는 대중교통관련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승객들을 위한 실시간 교통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교통 체증으로 인해 버스 고유 신호, 버스 전용 고속도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질문	버스 운영과 관련 된 뮌헨교통협회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답변	그동안은 버스를 중심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고 S-Bahn, U-Bahn을 연결하는 보조 수단으로 여겼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버스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12m ~ 택시 형태까지 다양한 버스 형태를 도입하고 있으며, 뮌헨 시내뿐만 아니라 외곽운행 버스까지 연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EU법에 따라 버스를 전기/수소차로 대체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여 버스 라인 중 대체 필요 구간을 연구 중이다
질문	친환경 교통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뮌헨 시내에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또한 뮌헨 거주자가 아니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차량을 뮌헨 외곽에 주차하고 대중교통을 통해 뮌헨 시로 이동하고 있다.

질문	친환경 버스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답변	독일은 10년 전부터 수소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나 아직 경제적이진 않아 천연가스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 업체에서 친환경 버스로 전환할 경우 구입비 100%를 지원하고 있다

질문3	버스회사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답변	뮌헨교통협회는 매년 규칙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운송수익을 운수업체에 배분하고 있을 뿐 운수업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차원의 지원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 관련사진



IV 시사점 및 제안사항

1 독 일

- 독일의 경우 운수업체들이 자율경쟁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운송 수익 창출을 위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충청남도의 경우 2013년 버스요금 인상 이후 현재까지 동결하고 있다.
-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교통 이용요금으로 인해 대부분의 버스 노선이 비수익·적자노선으로 운행됨에 따라 충남의 각 지자체들은 막대한 운수업체 재정지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 현재 충청남도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그동안 타 지역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 재정지원금이 대폭 확대된 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 따라서 준공영제 도입 전 저렴한 요금으로 대중교통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수업체에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요금 현실화 및 노선 입찰제 등을 통해 운수업체가 수익을 내며 자율경쟁체제로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독일처럼 전반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기구를 설립한다면 장기적인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2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운수업체의 운영 적자부분을 지자체가 보조하고 있으나, 승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장기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으로 대중교통분야 부담률을 높이고, 개인교통분야 부담률을 줄이는 추세이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요금을 인하하는 반면 주차비 인상 등의 승용차 억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 이처럼 우리나라도 운수업체의 비수익노선 운영에 따른 적자부분을 보조하는 동시에 승용차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참고 (연수국가 일반현황)

1 독 일



- 위치 : 유럽중부
- 수도 : 베를린(Berlin)
- 언어 : 독일어
- 면적 : 357,022km²(한반도의 약1.6배)
- 인구 : 약 80,722,792명
- 인구구성 : 게르만족(91.5%), 터키인(2.4%)
- 종교 : 개신교(27%), 로마카톨릭(29%), 이슬람교(3%) 등
- 주요특징
 - 정식 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로, 북쪽으로 북해·발트해에 면하고 덴마크와 접하며, 동쪽으로 폴란드·체코, 남쪽으로는 오스트리아·스위스, 서쪽으로는 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와 접한다.
 - 행정구역은 16개의 주로 이루어졌으며, EU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 주요 산업은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화학 산업을 들 수 있으며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 오스트리아



- ◎ 위치 : 유럽중부
- ◎ 언어 : 독일어
- ◎ 인구 : 약 8,219,743명
- ◎ 인구구성 : 오스트리아인(91.9%), 유고슬라비아인(4%), 터키인(1.6%) 등
- ◎ 종교 : 로마가톨릭교(73.6%), 개신교(4.7%), 이슬람교(4.2%) 등
- ◎ 주요특징
 - 정식 명칭은 오스트리아공화국(Republic of Austria)로 북쪽으로는 독일·체코, 동쪽으로는 헝가리·슬로바키아,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이탈리아, 서쪽으로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 접한다.
 - 행정구역은 9개의 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는 민주주의적 연방 공화국으로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 주요 산업은 건설업과 금융보험업의 서비스업이며, 알프스산 등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 산업도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